**기쿠치시에 대하여**

기쿠치 지역은 구마모토현 북부의 비옥한 평야에 펼쳐져 있다. 기쿠치가와 강은 평야 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한 산들로부터 흘러나오며, 그 물은 2천여 년 동안 이 땅에서 벼농사를 번영시켰다. 농업은 이 지역의 생활과 문화의 중심이다. 이 중 많은 문화는 11세기부터 16세기 초엽까지 규슈 중앙 지역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던 기쿠치 일족의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기쿠치 일족의 본거지는 현재의 기쿠치시인 성하 마을(봉건제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시가지) 와이후였다.

기쿠치 일족의 융성

기쿠치 씨의 기원은 구게(조정에 봉직하던 귀족이나 고위 관리)로 봉직했던 관리인 후지와라노 노리타카로 보고 있다. 규슈 행정의 중심이었던, 현재의 후쿠오카 가까이에 위치한 다자이후는 현재 기쿠치 지방인 지역에 장원(큰 사원이나 신사, 귀족이 자신들의 재력으로 새롭게 개간한 땅)을 갖고 있었는데, 노리타카는 그 장원을 다스리기 위해 1070년에 이 땅으로 향했다. 노리타카는 자신의 성씨를 기쿠치라고 하고 기쿠치가와 강 가까이에 저택을 지어 성하 마을 와이후의 기초를 쌓았다. 쌀 교역으로 자손이 번영하여 기쿠치 씨의 지배를 확대했다.

노리타카의 자손은 능란한 외교술과 전장에서의 활약으로 일족의 세력을 확대했다. 이들은 기쿠치가와 강 유역의 교역을 독점하고, 평야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여 일본에서 손꼽히는 농경지로 발전시켰다. 기쿠치 일족의 번영이 정점에 달한 때는 북조와 남조의 두 왕조가 권력을 두고 다툰 14세기였다. 기쿠치 일족은 남조를 지지했고, 남조의 천황은 기존 동맹관계의 강화와 새로운 동맹관계의 구축을 위해 젊은 아들 가네요시 친왕을 규슈로 보내주었다.

문화 유산

1348년, 가네요시 친왕이 와이후에 도착하자 기쿠치 일족은 황족에 걸맞은 접대를 했다. 마쓰바야시라고 하는 신년 축하 행사는 와이후를 찾은 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열린, 노래와 북, 피리 연주에 맞추어 춤추는 예능으로서 현재도 이어지는 전통 행사가 되었다. 기쿠치시의 중심부에 있는 푸조나무 거목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650년도 더 전부터 황자가 본 상연 목록을 매년 재현하고 있다. 이 나무는 가네요시 친왕이 심었다고도 하고 땅에 꽂은 지팡이에서 돋아났다고도 한다. 10월 13일에 열리는 마쓰바야시는 무대와 푸조나무 사이에 관객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여 황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기쿠치의 마쓰바야시는 1998년에 일본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4세기 말에 남조가 멸망하자 기쿠치 일족은 차츰 쇠퇴한다. 그러한 가운데 기쿠치 일족은 지역 문화 발전에 힘을 쏟아 무사와 조닌(도시에 사는 상인과 장인) 교육에도 주목했다. 1500년대 전반에 기쿠치 씨가 다른 무장에게 패배한 뒤에도 그 유지는 계승되었다. 현재의 기쿠치시에는 기쿠치 씨의 영웅 동상이 곳곳에 있으며, 일족이 살던 성터의 돈대에는 그 위인을 모시는 신사가 세워져 있다.

매력적인 경치

18세기 이후 기쿠치는 동북쪽 산간 지역의 매력적인 경치로 유명해졌다. 기쿠치가와 강 최상류의 기쿠치 계곡은 일찍이 슈겐자(산악 신앙과 불교가 융합된 슈겐도를 실천하는 사람)가 수행하던 장소로서 자연이 험한 계곡이며, 1772년의 기행문에 처음으로 명승지로서 소개된 곳이다. 폭포와 몇 종류의 원시림이 있어 다양한 동식물을 길러내고 있다. 현재 기쿠치 계곡은 인기 있는 하이킹 명소이며, 기쿠치의 자연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전시한 현대적인 방문자 센터도 있다.